

2. 아르헨티나, 개혁좌파의 두 성향

에드가르도 모까*

1945년 페론주의의 급습 이후, 아르헨티나의 개혁좌파는 영속적인 분열 상태로 존속하고 있다. 하나는 후안 페론의 역사적 역할을 재평가하고, ‘민족-민중적’ 태도를 취하는 집단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민주주의 패러다임에 가장 근접한 집단이다. 최근 반세기를 가로지르는 이러한 분열은 오늘날 키르츠네르 시대에 재실현된다. 본고에서는 우루과이나 브라질과 같은 국가들에 존재하는 것보다 더 큰 아르헨티나 좌파의 이질성이 논쟁과 충돌의 유일한 동기여서는 안 됨을 주장한다. 두 성향 간의 풍요로운 대화를 조장하기 위한 기회 또한 될 수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시작된 개혁 과정에 대한 정치적 대안은 더 나은 좌파 정부가 아니라, 위장되지 않은 신자유주의의 복귀이다.

[Política/ Izquierda/ Progresismo/ Socialdemocracia/ Néstor Kirchner/ Cristina Fernández de Kirchner/ Argentina;
정치/ 좌파/ 진보주의/ 사회민주주의/ 네스토르 키르츠네르/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츠네르/ 아르헨티나]

라틴아메리카의 정치 논쟁은 이상하게도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1960년대는 발전의 문제와 종속의 문제가 무대 중앙을 차지했다. 그 시기는 쿠바혁명 때문에 ‘공식적인’ 공산당들의 신중한 전략이 뒤흔들

* [역주] 에드가르도 모까(Edgardo Mocca)는 아르헨티나의 정치학자로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교 교수이자, ‘정치·경제·사회 연구센터(Cepes)’에서 발간하는 잡지 《움브랄레스 Umbrales》의 발행인이다. 이 글의 원제는 “Las dos almas de la izquierda reformista argentina”이며, 출전은 ‘Nueva Sociedad’(No 217, septiembre-octubre de 2008)’이다.

리고, 무장봉기가 속출하던 때였다. 이런 현상에 직면한 미국은, 로스토우가 유명한 소책자 『경제성장단계론』에서 밝힌 근대화 이론에 영감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다. 케네디가 천명한 ‘진보를 위한 동맹’이 바로 이 시기를 상징하는 미국의 대 라틴아메리카 정책이다.

학문적 논쟁과 정치투쟁의 무대는 개혁파와 혁명파로 양분되었다. 칠레의 인민연합 정권을 전복한 군사 쿠데타를 기점으로, 그 후 10년은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군부독재 시기였다. 이런 시기 구분은 상대적이며, 칠레의 경우처럼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사건에 기초한 것이다. 주지하듯이, 브라질은 1964년부터, 파라과이는 1954년부터 권위주의 정권의 통치하에 있었고, 1966년부터 1973년까지 군부독재를 경험한 아르헨티나에서는 1976년에 다시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다.

그 다음 10년, 즉 1980년대는 ‘민주화 이행기’로, 제도 개혁과 민주주의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 시기 정치학 저술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드러난 대통령제의 해악에 대한 비판으로 점철되었다. 이제 논쟁의 중심은 발전과 종속의 문제에서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틀에 대한 논의로 옮겨갔다.

80년대 말, 경제위기와 더불어 구조 개혁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구조 개혁이란 당시 유행하던 완곡어법으로, 워싱턴 컨센서스에 의거한 민영화, 자유화, 전면 개방을 일컫는 말이다. 당시에는 신자유주의 개혁을 필연적이고 불가피한 과정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치학 저술에서는(수많은 진보적 성향의 연구도 예외가 아니다) 신자유주의의 ‘개혁’ 요구를 정치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현재는 라틴아메리카의 ‘좌회전’에 대한 논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논쟁도 흔히 일반화의 열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특성이나 라틴아메리카 내부의 지역적 특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특성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의 풍경은 공통점이 없지 않다. 이를테면, 이전에는 시장의 논리와 개인의 이해타산 논리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지배하던 무대 중앙으로 국가와 정치가 복귀하고, 빈곤퇴치와 평등의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새로운 사회적 행위자와 새로운 정치적 실천이 부각되고, 전통적인 정당이 위기를 맞고 있으며(국가마다 큰 차이가 있지만), 신조류의 사회적 동원과 갈등이 전개되고 있다.

정치평론가, 소식통, 정치행위자들 사이에서 대단히 유행하고 있는 해석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의 새 정권과 그다지 새롭지 않은 정권은 다음 두 가지 유형에 속한다. 하나는 포퓰리즘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민주주의, 즉 온건 좌파(일부에서는 ‘현대’ 좌파라고 한다)이다. 이러한 분류는 냉전시대의 좌파나 90년대의 우파 모두, 물론 완전히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채택하고 있다. 칠레, 우루과이, 브라질(여기에 포함시키기에는 마뜩찮은 점이 없지 않다)은 경제정책에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며, 세계에 개방적이고, 제도를 존중하며, 미국과 정보를 공유하는 동맹국인 반면에,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는 미 국무성이 사용하는 의미의 ‘포퓰리즘’ 정권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대내적으로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며, 대외적으로는 대결적이고, 민주주의 제도를 경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류는 문제가 있다. 겉보기에는 흥미로울지 모르겠으나, 실제로는 이들 국가의 정치과정이 지니고 있는 공통점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역사에서 드러난 차이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라틴아메리카학자 알랭 루키에는 최근 글에서¹⁾ 정치과정의 공통점을 매우 정확하

게 지적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적 변화는 이 지역 전반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화 과정에서 강력한 사회적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칠레의 성공적인 민주화 이행을 포함한 모든 사례에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완수하지 못한 책무, 즉 사회 정의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1990년대 국제 신용기관의 유일한 처방,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가 힘을 잃고 있는데, 이는 이론적이고 기술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라틴아메리카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하며, 이러한 불평등은 ‘구조 개혁’의 시기에 대폭 심화되었다는 명백한 증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유럽 진보진영의 경험을 성찰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 좌파의 딜레마를 이해하려는 시도도 자못 흥미롭다. 에른스트 힐레브란트는 「‘제3의 길’ 이후의 좌파」라는 글에서²⁾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시대의 종말과 ‘제3의 길(독일에서 얘기하는 ‘신중도파’)’의 ‘중도적이고 기술관료적’인 계획을 논한다. 이 글에는 매우 흥미 있는 분석이 많이 있는데, 이를테면 전통적으로 빈곤한 지역에서 당선자를 낸 중도좌파 세력들 사이의 관계 위기, 민족주의 감성을 과소평가하여 세계화 과정에서 국민국가가 소멸할 것이라는 소박론자들의 빗나간 견해, 신자유주의 경제담론을 수용한 좌파세력 등이다. 유럽의 중도좌파는 최근에 등장한 인구·문화·사회·환경 문제에 관심 있는 사회 세력을 고무시키지도 열광시키지도 못했다는 것이 힐레브란트의 결론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좌파세력은 집단적 이해관계의 파편화, 분해, 분열이라는 새로운 사회문화 환경에 대처해야만 한다. 이처럼 변화한 사회에

1) Alain Rouquié, “El jardín de los senderos que se bifurcan” en *Temas y Debates*, No 13, 8/2007.

2) Ernst Hillebrand, “La izquierda después de la “tercera vía”” en *Nueva Sociedad*, No 211, 9-10/2007. 참조: www.nuso.org/upload/articulos/3454_1.pdf.

서 좌파의 본질인 급진적 민주주의의 길을 추구하는 정치행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라틴아메리카 좌파의 딜레마 가운데 하나이다. 어찌 보면 라틴아메리카 좌파만의 딜레마는 아니다. 라틴아메리카인들 역시 ‘제3의 길’이라는 유행을 지나왔다. 수많은 진보세력이 신자유주의적 근대화라는 이데올로기적 참여에 연루되었다. 또 자칭하여, 리차드 로티(Richard Rorty)의³⁾ 용어로 말하자면, ‘문화적 좌파’로 입지를 좁혔는데, 이는 라틴아메리카 자본주의의 의제에서 사회 문제를 고찰할 때는 그다지 쓸모가 없다.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정치 풍토는 복잡하고, 이질적이고, 가변적이다. 그러나 한때는 신자유주의 ‘유일사상’의 논리에 밀려났기도 했으나,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오래전부터 당연하게 여기던 여러 주제가 정치의 영역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경향은 희망적이다. 시장과 관련된 국가 논쟁이 재개되었고, 많은 국가에서 대중운동이 눈에 띄게 다시 활성화되었으며, 지역통합을 강화할 필요성과 연관된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독립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면, 현재 진행 중인 과정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보다는 정치적 자격문제를 부각시키는 분석도구의 사용은 권장할만하지 않다. 루키에의 말처럼, 포폴리즘이라는 용어는 “쓰레기 같고,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공허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이 용어를 사용한다면, “진지한 분석은 불가능하다.”⁴⁾

사회민주주의 전통에 영향을 받은 좌파세력이 보기에는 그들과 다른 정치문화 유산을 물려받았으며, 현재 라틴아메리카에서 진행 중인 변혁의 중심에 있는 민중세력과 공개적이고 비판적인 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더욱 유익할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진영에서 보면, 현재 라틴아메리

3) R. Rorty, *Forjar nuestro país*, Paidós, Barcelona, 1999.

4) Alain Rouquié, ob. cit.

카 국가에서 상이한 길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변혁에 대한 대안은 ‘고전적’ 좌파가 아니라 주도권 만회이다.

아르헨티나 좌파의 두 성향

아르헨티나 개혁좌파의 잠재적 진영을 정의하려면, 문화적·이데올로기적 이질성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이질성은, 이를테면 칠레와 우루과이 사이의 이질성이나 유럽 좌파들 사이의 이질성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역사적 뿌리를 찾는다는 1940년대 중반의 페론주의 등장을 꼽을 수 있다.

그때까지 아르헨티나 좌파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양대 정당이 주축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각 당은 상대방을 아르헨티나 자유주의의 비판적 상속자로 인정하고 있었다. 페루인 호세 까를로스 마리아페기의 말로 표현하면, 진정한 자유주의의 운명은 사회주의로 가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관련성은 1930년에 들어와 위기에 봉착하고, 1945년에는 페론주의가 승리하며, 1955년 쿠데타로 페론정권이 전복된 이후에는 민족주의와 결합된 사회주의가 무대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페론주의의 분출과 관련된 복잡한 인과관계나 방대한 이데올로기적·문화적 결과를 분석하는 작업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지적하고 넘어가야겠다. 국가가 추진한 사회적 진전, 반제국주의 성향의 정치, 이데올로기와 긴장관계, 페론 운동으로 태동한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같은 담론적이고 실천적인 혼합은 아르헨티나 좌파의 정치문화적 성격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 이후, ‘자유주의·사회주의’ 성향은 과거에 대한 평가와 현재에 대한 해석에서 ‘민족·민중적’ 성향과 궤를 같이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엇나가기도 했다.

페론주의는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좌파’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페론정권(1946~1952)이 추진한 개혁은 그때까지만 해도 정치에서 배제된 광범위한 노동자 대중을 정치무대로 끌어들이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사회주의 성향의 좌파들은 근본적으로 페론 정권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들은 페론 정권의 코포라티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폭로하고자 했다. 1955년 이후, 페론주의에 대한 해석은 아르헨티나 정치적 의제의 초점이 되었다. ‘페론주의 색깔 없애기’를 조장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조차 페론이 등장한 1945년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제는 페론주의의 민족-민중적 요소를 정치에서 배제한다는 것이 불가능했다. 사회주의 좌파 진영에서도 이런 요소를 재평가하고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이로써 좌파 내부에 변화가 생기고, 좌파 성향의 정당 사이에 괴리가 생겼다.

한편, 페론주의를 배제하려는 군사정권이나 문민정권에 대항하여 페론주의자들이 강력하게 저항할 때마다 광범위한 사회 부문이 과격화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었고, 뒤이어 쿠바혁명이라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페론 좌파는 여타의 중요한 사회 조직과 더불어 영향력 있는 정치적 흐름을 형성했다. 이와 같은 아르헨티나 좌파의 변화를 보여주는 증거는 1970년대 폭력사태의 주역인 무장조직들의 이데올로기적·정치적 다양성이다. 다른 한편으로, 1945년 페론이 집권한 이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노선에 충실한 좌파들은 다시는 노동운동에서 -근본적으로 페론주의 성향을 유지하고 있었다-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지 못했으며, 선거에서도 비중 있는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지 못했다. 좌파 진영에서는 페론주의자와 반페론주의자를 구분하는 일이 횡행했는데, 지금도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

까를로스 메넴 시대의 개혁론

1989년은 세계사와 아르헨티나 정치사에서 전기적인 해였다. 유럽에서는 ‘현실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아르헨티나에서는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이 무너졌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아르헨티나에서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는 불길한 한 시대를 마감하고 있었다. 1930~40년대 국내시장 중심의 발전을 추구하고, 기업 간 갈등이나 분배 갈등에서 국가의 조정자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시작된 한 시대가 마감된 것이다. 이러한 동시성은 의미심장하다. 왜냐하면 이로써 까를로스 메넴은⁵⁾ 사회문화적으로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하고, 수십 년 동안 세계에서 통용된 상식 위에 맞을 내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의 파탄, 유럽 복지국가의 위기, 세계화된 세계의 등장, ‘코포라티즘의 부담’에서 해방된 개인에 대한 강조, 유일한 선택지가 된 세계적인 경쟁과 개입이 그 어떤 적도 물리칠 수 있는 논리적 혼합물이었다.

아르헨티나의 영향력 있는 좌파들 가운데 이 시기의 폭풍에서 무사히 빠져나온 좌파는 하나도 없었다. 가장 진보적인 페론주의 진영조차 페론주의 정권은 신보수주의 기조의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메넴은 노골적으로 좌파를 싫어했다. 좌파 진영은 2차 페론 정권(1952~1955)을 무너뜨린 1955년 군사 쿠데타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이⁶⁾ 대선에 출마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또, 제1차 걸프전 때는 미국과 ‘혈맹관계’를 선언하고, 1970년대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국가 주도의 테러행위에 앞장선 군인들까지도 사면하는 메넴 정권을 감내해야

5) 리오하 주의 주지사이자 페론주의자인 까를로스 메넴은 1989년 선거에서 민족주의적인 성격과 생산주의적 성격이 혼합된 연설을 했다. 그러나 권좌에 오르자,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주도했다.

6) [역주] 1989년 아르헨티나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민주중심연합당’(Unión del Centro Democrático)의 알바로 알소가라이(Alvaro Alsogaray)를 가리킨다.

했다. 페론 좌파를 제외한 나머지 좌파의 입지도 나을 것이 없었다. 베를린 장벽과 함께 신화도 무너져 내렸다. 이 신화에 대한 열광은 친소련 공산주의의 한계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열렬한 비판자들까지도 인정해주는 평가기준이었다.

1990년대 초반의 암담하고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당시는 상상하기도 못했지만 오늘날에 보면 아르헨티나 개혁주의의 정치적 주체가 탄생하게 된 단초로 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실험이 있었다. 이러한 실험의 주된 동력은, 페론주의 단절에서 태동했다. 이른바 ‘8인 그룹’은 흔히 얘기하는 메넴의 배신으로부터 당을 구해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독자적으로 활동했다. 페론주의 핵심으로 돌아가자는 이러한 호소는 1991년 총선에서 참담한 패배를 맞보았다. 2년 전인 1989년 대선과 마찬가지로 메넴파가 승리를 거둔 것이다.

그러나 ‘8인 그룹’의 지도자 까를로스 알바레스(일명, 차초 알바레스)의 주도로 아르헨티나 진보진영에서 가장 참신하고 흥미 있는 실험이 전개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전통 좌파 정당의 온갖 정파가 결집했다. 여기서 ‘대연합전선(Frente Grande)’이 결성되었고, 후에 이 조직은 사회주의 정파와 멘도사 주의 전 지사이자 페론주의자인 호세 보르돈이 참여하는 ‘연대조국전선(Frepaso, Frente País Solidario)’으로 발전했다. 특히, 보르돈의 성명은 좌파 진영에서 매우 참신한 것이었다. 그는 정부와 다수파가 개혁론을 형성하고, 다양한 기원의 좌파는 반(反)제도적인 이론을 폐기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개혁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연대조국전선의 실험은, 비록 실패로 막을 내렸으나, 다양한 색깔의 진보적 정파들이 정치적으로 공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였다. 또, 좌파 진영 내부의 해묵은 싸움은 역사적인 논쟁보다는 구체적인 의제를 통한 정치행위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

다는 증좌였다.

하지만 연대조국전선은 태환정책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사회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취약성에 대응할만한 현실적인 수단이 없었고,⁷⁾ 또 선거 전략상 정치적 연대를 하였기 때문에 점증하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손을 놓고 있어야 했다.⁸⁾ 2001년 12월, 페르난도 데 라 루아 정권의 퇴진과 동맹당의 위기는 정치적 실험의 안타까운 종말이었다. 아무튼 이 실험은 아르헨티나 개혁주의의 미래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례이다.

위기와 기회

2001년 12월의 환율 붕괴와 대내외 공계약의 파기에 뒤이은 경제적·사회적·정치적 파탄은 아르헨티나 역사의 한 시기를 요란스럽게 마감한 사태였다. 단순한 정권의 위기가 아니었다. 그 시절에는 정권은 물론이고 정치계의 생존여부조차 입에 담기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는 비상하게 활성화되었다. 정치계는 다양한 사회 부문에서 상이한 형태로 표출된 격분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다. 이러한 사태의 결과로써 그 시기에 표출된 사상적 분위기는 매우 중요하다.

7) 1991년에 시작된 태환정책은 아르헨티나 페소화와 달러를 1:1로 교환하는 것으로, 1990년대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핵심 정책이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엄격한 태환정책은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낳았고, 2001년 12월 마침내 파국에 이르렀다.

8) 1997년 연대조국전선은, 아르헨티나 정치사에서 페론주의와 더불어 주역을 담당한 급진 시민연합(UCR: Unión Cívica Radical)과 정치적 연대를 맺었는데, 이를 ‘동맹당(Alianza)’이라고 불렀다. 1999년 동맹당은 페론주의에 맞서 페르난도 데 라 루아(급진시민연합)와 차초 알바레스를 각각 정부통령 후보로 당선시켰다. 그러나 차초 알바레스 부통령은 다수의 여당 상원의원과 정부인사가 연루된 스캔들에 휘말려 2001년 경제위기 직전에 사임했다(역주-정확한 사임 일자는 2000년 10월 6일이다).

정치적·학문적 우파는 2002년 중반까지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리라 하고 예상하고,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하다는 진단과 더불어 광범위한 사회적 항의를 자극하는 낭설을 유포했다. 오늘날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2002년 초 언론계에서는 괴문서가 나돌아 다녔다. 그 내용은 현 상황을 진정시키려면 국가가 파산을 선언하고, 국제적인 전문가 위원회에 모든 결정을 위임해야 된다는 것이었다.⁹⁾

정치적 좌파진영에서도 점진적이고 또 현명한 위기탈출 방안을 고려할 여유가 없었다. 이데올로기적으로 가장 정체된 그룹—경제위기 전에도 미미한 존재였고, 사태가 어느 정도 정상된 다음에도 미미한 존재로 남았다—이 갑자기 무대 전면에 부상한 사실을 고려하지도 못했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신자유주의 개혁에 동참하던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이 주장하는 재건 담론을 선호하는 분위기였다.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다. 핵심 논리는 한층 ‘직접적’인 성격의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인데, 비록 구체적인 방안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나, 그 정신은 대의제 거부였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적이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과정을 통해 정치를 회복할 가능성은 희박했다. 위기 탈출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보수 정권이나 심지어는 권위적인 정권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천만다행히도, 또 대다수 정치지도자들이 고도로 신중한 태도를 취한 덕분에, 국가적 위기는 예상보다 훨씬 더 평화적이고 온건하며, 또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해결되었다. 상당한 정도의 경제회복—무오류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위기 속의 ‘정점’으로 평가했다—과 페론주의 내부의 권력

9) 경제학자 리카르도 까바예로(하버드대학교 교수)와 루디 돈부시(MIT 교수)는 ‘아르헨티나: 구제 계획’이라는 문건에서 아르헨티나는 향후 5년 동안 경제주권을 양도하라고 제안했다.

경쟁이라는 틀에서 보면, 2003년 5월에 실시된 대선과 총선은 개혁주의에게 새로운 기회였다.

좌파 진영이나 진보 진영의 현재 상황을 평가하려면 민족-민중주의 성향과 사회주의 성향의 역사적 분열로 야기된 깊은 상흔을 고려해야만 한다. 네스토르 키르츠네르를 필두로¹⁰⁾ 2003년 5월 정권을 장악한 정치그룹은 1970년대 페론 좌파의 정치적 경험을 물려받았다. 이러한 유산은 물론 시간의 흐름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적절히 조정되었지만,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국운영 방식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상이한 경향의 진보파가 내린 평가는 강점과 약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아르헨티나 정치가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모순, 앞서 언급했듯이, 바로 좌파를 관통하고 있는 모순에 물들어 있다.

정의당 성향의 세 후보 중 한 명이던 키르츠네르는 2003년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취임 연설에서 키르츠네르는 전통적인 정당을 초월한 정치적 수단을 형성할 필요성과 중도좌파와 중도우파의 역동적인 경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키르츠네르 정권은 초기 정책부터 개혁 성향을 분명히 드러냈으며, 스스로 당시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탄생한 개혁 성향의 정권에 속한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은, 대다수 국회의원과 키르츠네르를 지지한 주지사, 그리고 사회기반조직은 한때는 메넴을 지지한 정의당 출신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정치구도는 공식적인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전통적인 페론주의 정책의 유지와 이미 공약으로 제시한 혁신 사이의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진보세력의

10) 빠따고니아 지방의 주지사이던 키르츠네르는 경제위기 직후 임시대통령직을 떠맡은 바 있는 페론주의 지도자 에두아르도 두알데의 지원으로 2003년 4월 27일 선거에 출마했다. 이 선거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또 다른 페론주의 후보자 두 명도 출마했다. 이처럼 분열된 상황 속에서도 키르츠네르는 22%의 지지를 얻어 메넴과 함께 결선투표에 올랐는데, 메넴은 압도적으로 패배하리라는 우려 때문에 결선투표를 포기했다. 키르츠네르는 5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했다.

리더십은 이러한 갈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매끄러운 연설에 있다. 한편으로는 변화의 메시지를 던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 정치’를 지속함으로써 정권의 주도권 다툼은 격화된다. 현 정권의 정치에 관한 논쟁은 아르헨티나 개혁주의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의 현 상황을 진단한다는 점에서 평가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러나 핵심은 아르헨티나가 고유한 특성을 지닌 채로 현재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문화적 변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최근 몇 년 동안 1990년대의 지배적인 상식에 대한 재고가 있었다. 국가와 시장과 사회적 행위자들의 관계는 신자유주의가 헤게모니를 잡던 시대에는 예상하지 못한 역동성을 띠게 되었다. 국민 국가는 무능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세계적 활동에 개입할 수 없다는 논리는 신개발주의 비전에 자리를 내주었다. 신개발주의는 비록 국가 자원의 취약성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하지만, 정치가 다시 사회적 분배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인식은 손익계산도 하지 않고 현실을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아르헨티나는 현대의 가장 심각한 위기에서 탈출했다. 이런 과정에서, 아직도 매우 취약한 경제로부터 정통성 결여의 흔적이 남아 있는 정치적·국가적 제도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서 거대한 문제를 떠안게 되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의제가 현재 논의 중인데, 여기에 민주적 좌파가 참여한다면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진보주의의 분산

중앙정부에¹¹⁾ 대한 태도는 개혁좌파 내부에서도 차이가 있다. 연대조

11) [역주] 아르헨티나는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중앙집권제의 성격이 강하다.

국전선의 지도부를 기준으로 삼아 현 상황에 대한 지도를 그려보면, 크게 세 진영이 눈에 띈다. 지도부의 일부는 현재 정부에서 일하고 있으며, 정치기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른 진영은 야당에서 활동하며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고, 마지막 진영은 지방정부에 참여하고 있는데, 산타페 주의 경우는¹²⁾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는 않다.

이런 상황은 복잡해서 선거 일정이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민주적 정치과정의 고유한 논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말을 바꾸면, 정당은 때가 되면 선거공약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창조적이고 유연한 상호작용이나 정치적 프로그램을 논의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며, 또 관계를 유지, 강화하고 조직적인 협력을 위한 제 조건을 창출할 수 없다는 뜻도 아니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앞서 언급한 각각의 상황을 만들어낸 상이한 조건에서 출발해야 한다.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개혁좌파 진영의 지도자들은 다양한 정치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 일상적으로 업무에 관여하기 때문에 정세판단에 따라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변화 과정을 체험하고, 또 이러한 과정에 기여함으로써 아르헨티나 현실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갖게 된다. 동시에, 국가기관의 개혁좌파는 권력이 집중되고 인물에 의존하는 정권에서는 인물난이나 리더십의 부재를 겪는다. 정의당(PJ)의¹³⁾ 재조직에 주력하고 있는 현 단계는 키르츠네르주의(kirchnerismo)가 등장하면서 수면

12) 산타페는 아르헨티나에서 중요한 주로, 주 도시는 로사리오이며, 20년 전부터 사회당의 본거지였다. 2007년에는 로사리오 시장을 지낸 에르메스 비네르가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사회당 최초의 주지사가 되었다.

13) 2008년 프리스띠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츠네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네스토르 키르츠네르는 정의당 당수에 취임했다.

위로 떠오른 정치적 협력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야당에서 활동하는 개혁좌파는 정부 정책의 난맥상과 잘못된 정책 비판에 주력하고 있는데,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린 광범위한 사회적 요구를 갈수록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는 곤경에 처해 있다. 이들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과 논리적으로 차이가 없으나, 그 기반은 광범위하게 포진한 독자적인 정치 세력이다. 이들이 직면한 큰 문제는 현 정권의 주요 비판 세력이 아르헨티나 사회의 특권층이라는 데 있다. 이처럼 야당 진영에는 정부가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좌파 세력과 2001년 경제위기 이전의 정치 상황으로 되돌리고 싶어서 현 정권을 비판하는 우파 세력이 있는데, 이들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키르츠네르주의에 대해 조직적이고 전면적으로 반대하면 할수록 반대자들은 정치적으로 더욱 가까워진다. 최근 농업생산자들의 파업이나 콜롬비아와 에콰도르의 갈등도 이러한 경향을 잘 드러낸 사례이다.

산타페 주에서 사회당 주도의 진보연합이 승리한 것은 좌파에게 중요하고, 정치적으로도 선선한 충격이었다. 아르헨티나 주요한 주의 정치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건이었다. 또, 주정부를 진보세력이 장악한 것은 경험의 축적이며, 진보세력과 사회의 관계 강화에도 이바지한다. 그렇지만 지방과 주정부 장악이 곧 중앙정부 장악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조만간 산타페의 진보진영 지도자들과 진보세력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자신들을 규정하고 동맹을 결성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

이처럼 광범위한 정치세력에게 가장 큰 도전은 역사적인 두 성향의 문제와 현재의 정치적 위치의 문제도 있지만, 현재의 아르헨티나 지평보다는 과거에 집착하여 분열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적 자유와 제도적 특성은 사회적 포용과 모순된다는 생각은 버릴 수 있고,

또 버려야 한다. 아울러 중산층을 사회에서 가장 낙후된 부문과는 대조적으로 소외시킨다거나 경제사회 발전은 일부 사람들의 복지로 측정될 수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논의는 현실적인 정치 의제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지, 제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데올로기적 철용성에서 출발하거나 정치적 구조나 색채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데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

개혁주의의 미래

아르헨티나는 주변부 국가이다. 다행한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세계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지역에 위치한 국가이다. 이런 세계에서 처신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차단한 자립적인 발전 계획의 선택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주권을 강조하는 논리는 고유의 취약점을 무차별적이고 불평등한 개방 논리로 만들어버린 신자유주의적 상식을 수정할 때가 되면 유효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발전모델을 지탱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세계화는 정치 스케일을 바꾸어 놓았고, 세계의 여러 지역은 방향 설정에 필요한 모듈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시기의 개혁주의는 과감하고 구체적인 통합의 로드맵을 가져야 한다. 생산적인 것에 집중하고, 정치적으로는 야심적이며, 메르코수르(Mercosur)를 핵심으로 삼는 로드맵을 보여줘야 한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으로부터,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지역과 더불어 세계적 의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평화 수호, 다자주의, 그리고 현재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교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공정한 교역 조건의 추구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목표이며, 중심국의 관심사인 안보와도 연관된 문제이다. 이에 대한 좋은 사례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산토도밍고에서 개최된 리우그룹 회의였다. 이 회의에서는 안데스 지역의 갈등과

예방전쟁론을 다루었으며, 대테러작전이라는 명분으로 국경을 침범하는 군대는 단호히 격퇴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국가의 위치는, 두말 할 필요도 없이, 의제의 또 다른 핵심이다. 세계화된 세계에 대한 신자유주의 해석은 경제의 세계화와 지방 권력의 새로운 기능 요구라는 이중의 과정 속에서 국민국가가 쇠퇴하고 있다고 단언한다. 정부에 대한 사회의 새로운 요구에 대한 진지한 탐구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민국가는 앞으로도 정치적 시민권의 유일한 중심이 될 것이다. 자본, 특히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초국가적인 해법의 추구가 최근까지 지배적이던 국가개입반대론이라는 불가타(Vulgata)로 대체된 결과, 최근 200년 동안 민주적 제도를 꽃피운 유일한 영역인 국가의 약화를 초래했다. 위르겐 하버마스가 자주 언급하듯이, 모든 국민국가가 민주적이지는 않지만, 국민국가 외부에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의 회복, 정치의 회복이 최근의 문명적 변화를 부정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좌파는 국가, 사회, 시장의 관계를 교조적이고 폐쇄적인 관점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 건설의 조건이라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노르베르도 보비오는¹⁴⁾ 평등이란 좌파의 ‘북극성’이라고 말했다. 평등을 위해 투쟁하지 않는 좌파는 없다. 아르헨티나 개혁좌파의 의제는 현재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문제에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다. 비중 있는 아르헨티나의 어떤 좌파는 1980년대 강령에 민주공화정과 우파 국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담아냈다. 이는 진전이며, 이를 급진적인 사회변혁을 위한 정치적 단절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철회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수호는 오늘날 제도

14) Norberto Bobbio, *Derecha e izquierda. Razones y significados de una distinción política*, Taurus, Madrid, 1994.

적 영역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생산, 교육, 문화 영역에서 배제된 수백만의 남자와 여자들이 폭력에 노출되어 희생자가 되기도 하고, 살인자가 되기도 한다. 그 어떤 민주주의 이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단적 사안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외시하지 않는다. 우리가 제도 강화를 생각할 때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구성원들의 시민권을 보장하는 국가를 생각한다. 현재보다 더욱 진보적인 논리로 세금을 징수하고, 소수가 주도하는 정치를 배격하며, 모든 사람에게 교육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 성 평등을 보장하는 법률과 노동법을 적용하는 국가이다. 이것이 평화적이고 문명적인 공존을 위해 지켜야 할 조건이다.

지금은 현 정세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가진 진보진영이 공동의 문제를 성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매우 적절한 때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성찰이 라틴아메리카에서 다른 경험을 한 주역들과 막힘없는 대화를 통해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난관과 정치적 일정을 고려하여 진보진영의 결집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는 3년도 더 남았다. 내년(2009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정치적 재결합의 시간이고, 변화와 긴장의 시간이다. 위기 탈출은 새로운 조건과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법이다.

정당 제도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2001년 경제위기로 야기된 것이다. 경제위기의 여파는 아직도 남아 있다. 대다수 사람들의 예상과 다르게, 낡은 당파구조는 해체되지 않았는데, 이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다. 2003년에 시작된 새로운 정치상황은 대의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을 때 붕괴된 것처럼 보이던 낡은 정치구조와 공존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민주주의가 성취한 제도적 연속성은 새로운 현상과 낡은 정치형태의 공존에서 가능했다. 그러

나 새로운 결집을 위한 공간도 있다. 실제로 우파 언론과 정치세력은 제도적 성격을 회복하라는 요구와 정부의 실책을 빌미로 현 정권의 정책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페론주의의 한 정파와 합세하여 야권을 형성하고 있다.

키르츠네르주의가 정의당의 제도화를 열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의당은 지방과 국회에서 현 정권의 주요한 지지기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의당만으로는 이미 시행에 들어간 의제와 같은 변혁의 의제에 필요한 지지와 열광은 생성되지 않는다. 정의당과 거리를 두고 있는 개혁세력은 정부와 독자적이고 지적인 대화가 가능한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이러한 대화는 일개 정치인으로서, 대표로서 포괄적인 참여와 단합 의지를 표현해야 할 것이다. 선거일정 또한 기회가 될 수 있다. 2009년에는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국적인 진보세력이 결집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이며, 광범위한 정치적 동맹 위에서 전국적인 차원의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러므로 공동의 전략적 성찰과 더불어 단합에 이르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정치적 실천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러한 목표 달성에 필요한 관용과 포용력은 아르헨티나 역사상 그 어떤 관용과 포용력보다 중요한 것이다.

(박병규 번역)